**<‘함께’ 하는 기쁨과 감동>**

다시 시작된 현장 예배에서 느꼈던 마음을 나눕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모두가 똑같이, 처음 경험해보게 하였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던 시간 속에서 저희 목장원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개인의 신앙과 목장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함께했기에, 목장원들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고마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장원들 중에는 코로나 기간에 새롭게 목장에 들어오게 된 VIP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교제였지만, VIP들이 목장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서서히 젖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지체들도 많은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VIP들의 발걸음을 확고히 붙잡아주시니 더욱 놀라우신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모임을 힘써 지키던 목장원들을 현장 예배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니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과 얼굴로 맞닿지 못했던 그리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요. 서롤 향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로 인한 기쁨의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습니다. 한마음으로 한곳에 모인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갈급했는지, 이러한 감격과 깨달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애인 목장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은혜가 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마음껏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삶의 고백으로, 전인격의 고백으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백은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인도자와 찬양팀, 예배당 뒷편에서 헌신하시는 교역자분들,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살피시는 담임목사님, 수많은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현장 예배의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지체가 마디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교회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현장 예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의 은사와 직분을 가졌으나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목격하지 못한 공동체 안의 연결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음성에 다함께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사랑을, 섬김의 마음을 주셨다면 섬김을, 결단의 마음을 주셨다면 결단을.

결국 예배 중 공동체가 연합하여 반응하는 이 시간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용기를, 혼자만의 예배 속에 가질 수 없었던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도처에 놓여있고, 때문에 나홀로 공간 속에서 기대감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연합을 통해 소망과 담대함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 제게 비추신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